

• 인물전기 •

장군의 딸

[한국] 김철수



출판사
조선민

• 인물 전기 •

장군의 딸

[한국] 김철수



김철수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将军的女儿: 朝鲜文 / (韩) 金铁水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 11

ISBN 978-7-5389-1478-8

I. 将… II. 金… III. 传记文学—韩国—现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12.6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74137 号

书 名/ 将军的女儿

著 者/ (韩) 金铁水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李英玉

责任校对/ 徐 燕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有限公司

开 本/ 880mm×1230mm 1/32

印 张/ 5

字 数/ 100 千字

版 次/ 2007 年 11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1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78-8 (民文)

定 价/ 12.00 元

머리말

필자는 이제까지 약 200여권의 책을 썼다. 그가운데는 위인들의 전기도 있고 순수 창작물도 있으며 칼럼집이나 시집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데는 준비기간만도 약 7년이나 걸렸다.

이 책의 주인공인 고 김강석녀사와의 첫만남은 1998년 6 월이었다. 그후 일년에 한두번씩은 어김없이 만나뵈었고 그때마다 나는 알지 못할 무거운 그 어떤 무거운 부담감을 느낄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보니 필자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부담감이란 바로 이분의 삶을 조명해서 기록에 남기여야 하겠다는 바로 그런 사명감이었던 모양이다. 일상의 드바쁜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 글을 마무리하게 되니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다.

이 순간 김좌진장군의 따님 김강석녀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준 고마운 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김강석녀사의 생활비를 지원해 준 광주 《빛과 사랑 교회》의 담임목사 리종기박사님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랑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과 정성어린 성금으로 용기를 주셨던 《중국동포사랑방문단》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인물전기는 약 80여년이란 세월을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에 손을 댄것은 후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디딤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목단강에 남아있는 장군의 후예 가족들과 김좌진장군을 흠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장군의 따님 고 김강석녀사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05 년 10 월 7 일

한국 새별문학관에서

저자 김철수

• 차 례 •

1. 산새(山鳥)의 슬픈 노래/7
 2. 아버지 김좌진장군/14
 3. 어머니 김영숙과 《8로》들/31
 4. 양부모 김기철과 김분희/40
 5. 소녀《독립군》 김강석/53
 6. 다시 부활한 장군의 딸/69
 7. 《비밀결사대원》 김강석/83
 8. 양부와 사별한 장군의 딸/94
 9. 남편 위정규와 장군의 딸/102
 10. 《중국동포사랑방문단》과 장군의 딸/113
- [부록]
- 나의 부친 김좌진/128
- 청산리전투/144

1. 산새(山鳥)의 슬픈 노래

1920년대는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이 조선국내에서뿐 아니라 멀리 두만강너머 중국땅에서도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하던 년대였다.

청산리에서의 싸움이 끝난 다음해인 그해 12월 중순, 밀산에 도착한 북로군정서는 다음해인 1921년에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간도대한국민회》, 《대한신민회》, 《도독부》, 《의군부》, 《혈성단》, 《야단》, 《대한정의군정사》 등 9개 반일무장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하였다. 총재에는 서일, 부총재와 참모부장은 백야 김좌진장군이 맡았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크고작은 36개 반일무장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대한



▲ 백야 김좌진장군의 딸 김강석녀사

의용군 총사령부》를 《대한독립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백야 김좌진장군이 사령관 겸 참모부장이 된것이다.

1928년, 백야 김좌진장군은 《신민부》의 대표로 중국 동북에 있는 독립운동단체인 참의부, 정의부와 3부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처리해야 될 일때문에 산시에서 해림으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고있었다.

《사령관, 3부통합은 이제 가망이 없는것인가?》

함께 동행했던 《8로(八老)》중 한사람인 김기철로인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호위병 강익선과 별동대원인 중국사람 둘은 백야 김좌진장군과 김기철로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운 채 해림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해 산속으로 들어서고있었다.

《할 일은 많건만 무정한 세월은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군은 산마루에 피여있는 할미꽃을 보면서 문득 지난해 음력 5월 3일에 재혼한 안해 김영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서 남자는 그저 녀자가 가까이 있어야 외로움을 덜 타는것일세.》

김기철로인은 김장군의 얼굴모습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 각시가 오늘쯤은 가까이 와있을걸세. 이제부터는 되도록 함께 지내도록 하게. 지금 배가 남산만큼 불러 언제 아기를 출산할지 모르네.》



▲ 김좌진장군이 설립한 해림시조선족실형소학교

결혼식을 올린지 어언 1년이 지났는데도 김장군은 안해를 해림에 혼자 놔두고 혼자 석두하자와 산시에서 지내왔던 것이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래있는 칠가툰마을에 우리 동포 리동호씨 집에 방 하나를 구해놔오니 이제부터 그곳에서 안해와 함께 지내도록 하라는거야.》

《죄송합니다. 다른 일들도 복잡하실텐데 제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말입니다.》

《무슨 말씀. 김장군이야 우리 삼천만 민족의 희망이요, 대들보가 아닌가. 장군이 건강하고 아무일 없어야 우리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해림으로 가는 지름길은 산과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구

불구불한 오솔길이였다.

다섯사람이 산중턱쯤에 들어섰을 때 웬 녀인 한사람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겁지겁 달려오고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겁을 먹고 달려옵니까?》

호위병 강익선이 녀인앞에 다가서며 묻자 녀인은 손에 든 광주리를 땅바닥에 내려놓으며 손가락으로 산속을 가르키는것이였다.

《저기... 저기...》

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겁에 질려있었다.

자기는 산아래 기봉이란 마을에 살고있는데 산나물을 캐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것이였다.

산새소리와는 전혀 다른 비명이나 신음소리 같은것이 계속 들려와 겁을 먹고있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뛰어나온것이다.

《그 소리가 난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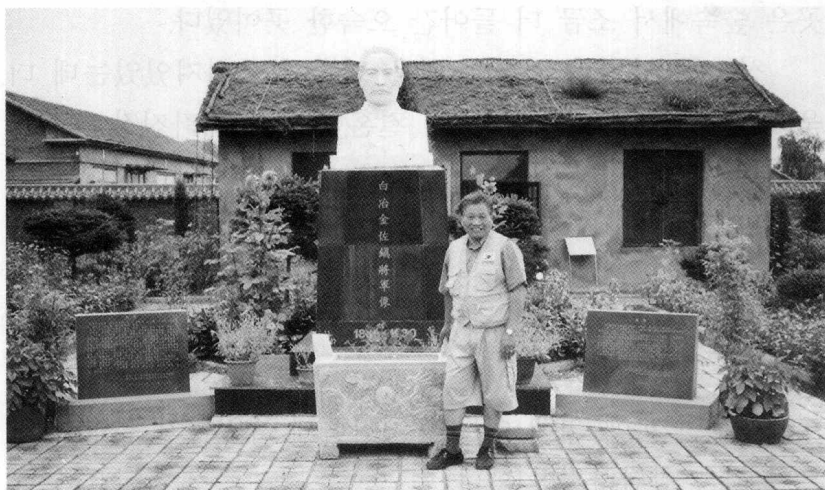
《저를 따라오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그곳으로 가봅시다.》

녀인을 앞장세운 장군의 일행 다섯사람은 잔뜩 긴장을 한채 녀인이 가르키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았다.

《장군님!》

앞서가던 호위병 강익선은 외마디 비명처럼 소리를 질



▲ 해림시 산시진에 세워진 역사유적관에서 필자

렀다.

《무슨 일인가?》

《어서 와보세요. 이렇게 끔찍할수가 없습니다.》

일행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다.

《이게 간난아이가 아닌가?》

피덩이와 다름없는 간난아이가 숨이 넘어갈듯 울부짖고 있었는데 영낙없이 산새소리와도 같았다.

《이곳에 태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디로 갔단말인가?》

불길한 예감에 다섯 사람은 각기 흩어져 아이를 낳은 산모를 찾기 시작했다.

《장군님! 여기에 산모가 있습니다!》

급기야 산모를 먼저 찾은 일행의 소리를 듣고 달려간

곳은 숲속에서 조금 더 들어간 으스스한 곳이었다.

산모는 가슴과 얼굴에 칼을 맞은채 쓰러져있었는데 더욱더 놀랄 일은 바로 1년전에 결혼한 백야 김좌진장군의 안해 김영숙이었던것이다.

《아, 이럴수가 있단말인가?》

장군과 일행은 차마 두눈을 뜨고 볼수 없는 참상앞에서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한참동안 우두커니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누구의 손에 의해 이토록 처참하게 죽었는지 알수가 없으니 더욱 참담하기만 했다.

《이건 장군의 피덩어리야. 목숨이 붙어있으니 그대로 두고 갈수는 없잖은가?》

김기철로인은 자기가 입고있던 옷소에서 실밥을 뽑더니 갓난아기의 태줄을 땀다.

스무살된 호위병 강익선은 자기가 입고있던 옷을 벗어 애기를 싼후 가까이에 있는 피나무 껍질을 벗겨 때를 만들어 품에 안았다.

《어서 양지바른 곳에 산모를 묻을수 있도록 준비해라.》

김기철로인은 함께 간 일행에게 아래마을에 내려가 삽과 곡괭이를 빌려오도록 지시한후 서둘러서 장군의 안해를 묻어주고 비통한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목적지인 해림으로 가지 않고 아래마을 외딴 주막집에 들렀다.

피덩어리 갓난아기를 우선 돌보는것이 시급했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주막집주인은 자기들이 아이를 키워줄테니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기철로인은 자기들 몸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는 주제에 간난아기를 달라는 주막집주인의 청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우선 애기가 먹을수 있는 강냉이 죽이라도 좀 줘요.》

김기철로인은 주막집에서 얻어온 강냉이죽을 허리에 차고있던 수건 끝에 죽물을 묻혀 우는 애기의 입에 넣어주면서 달랠수밖에 없었고 배가 고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영낙없는 산새의 슬픈 노래로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 들었다.

2. 아버지 김좌진장군



▲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장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를 비참하게 잃고 젖꼭지 한번 빨아보지 못한 산조, 그의 아버지 김좌진장군은 누구인가?

그는 1889년 11월 24일, 한국의 충청남도 홍성군 일산면 향산리(옛지명은 고도면 상촌리)에서 안동 김씨 선원 김상용의 10대손 김형규(일명: 형균)의 둘째아들로 출생했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호는 백야(白冶), 자는 명여(明汝)이고 아호는 정원(靜遠)이었다.

출생당시 아버지인 김형규는 26살이였고 어머니 리씨는 한살 우인 27살이었으며 형제로는 9살난 누님 옥출(玉出)이가 있었고 5살난 형 경진(敬鎭)이가 있었으며 그후 4살 아래인 남동생 동진이가 태어나 3남 1녀가 되었다.

좌진의 아버지는 고종조의 참봉으로 지내면서 80여칸이나 되는 넓다란 기와집에서 남녀 종들만해도 50여명이나 거느린 부자로 홍성고을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좌진의 가문은 오랜 량반가문이었다.

김좌진이 태어나기 5년전인 고종 21년(1884년) 음력 10월에 개화당인 박영효, 홍영식 등과 손잡고 사대당인 민씨일파를 몰아낸 뒤 혁신정부를 세우기 위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金玉均)은 바로 좌진의 11촌 작은아버지이다.

북으로는 삼불산, 남으로는 청계천 맑은 물을 끼고있는 아늑한 갈산마을의 월선정 연못에 살얼음이 얼던 11월 24일에 태어난 좌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니, 간난애가 이렇게 크다니?》

《분명 커서 훌륭한 장수가 되겠어.》

집안사람들이나 마을사람들 모두 좌진의 출생을 기뻐했



▲ 한국 충남 홍성에 있는 김좌진장군 생가

고 후날 나라를 구할 영웅이 되어줄것을 바랬다.

그의 집에는 대를 이어 종으로 살아가는 준봉이라는 남종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종할미라 불렀다. 종할미는 어린 좌진이를 무척이나 귀여워하면서 거의 업어서 키우다시피 했다.

좌진이가 4살때 동생 동진이가 태어난 직후 좌진의 아버지 김형규는 몸이 아파 자리에 눕고말았다.

어느날 아버지는 어린 좌진이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다.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될거냐?》

이제 4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 좌진이에게는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다.

《난 커서 판서가 될래요.》

너무나 뜻밖의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두눈이 동그래졌다.

《얘야, 그건 안된다. 정승이나 판서가 되지 말고 훌륭한 장수가 되어 흉악한 역적과 매국노를 무찌르는 불호랑이 같은 장수가 되어라.》

좌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되물었다.

《불호랑이 같은 장수요?》

《그래.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어야 한다.》

유언처럼 들리는 말이였다. 그리고나서 좌진의 아버지는 이틀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말았다.